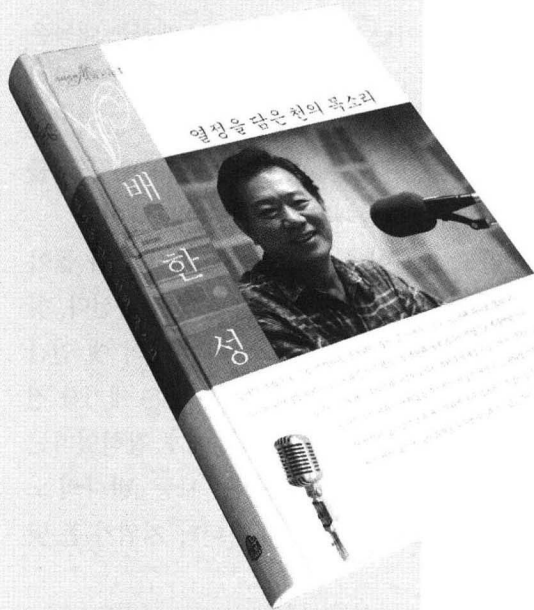


《열정을 담은 천의 목소리》

진정한 마이스터의 삶을 통해 확인하는
‘마이스터 불임’ 의 사회

글_임동헌



《열정을 담은 천의 목소리》
배한성 지음 | 예문 | 247쪽
값 9,800원

성우 배한성은 11월 중순 뜻하지 않은 일을 벌였다. 아트선재센터에서 일주일동안 ‘옛사랑’ 전시회를 연 것인데, 그 옛사랑이란 40년 동안 성우로 일하면서 틈틈이 모은 가구며 그림, 연적 등을 전시한 것이다. 놀랍게도 그 중에는 박수근 선생의 드로잉 작품도 있었다. 그런데 그가 박수근 선생의 드로잉 작품에 던진 애정이 놀랍다. 다른 이들은 박수근 선생의 작품을 집에 두면 무슨 일을 당할까 두려워 은행에 보관하곤 하는데 그는 ‘값이 오르더라도 작은 서재에서 나와 함께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게 할 것’ 이라고 밝힌 것이다. 말하자면 그때그때 주머니 사정에 맞춰 구입한 작품들인 만큼 가구며 연적이며 도자기 등이 자신의 삶을 웅변하는 것이니 늘 곁에 두고 함께 살아가고 싶다는 뜻이다. 그래서일까. 그는 주위 사람들이 ‘변변찮은 놈 열을 버리고 뽕뽕한 놈 하나를 만들라’ 고 충고하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값이 얼마 나가지 않을 ‘만만한 연적’ 들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면서 선보였다. 녀석들과의 ‘첫 정’ 을 생각하면 열 개를 버리고 하나를 장만하는 재테크 수단을 배우고 싶지 않다는 얘기다. 하긴 1960년대 올챙이 성우 시절, 인사동에서 마음에 드는 사방탁자를 발견하고는 주머니 속의 돈을 모두 털어 산 다음 정릉까지 걸어갔다니 어떤 고미술품이든 ‘첫 정’ 을 간과할 수 없을 터이다.

난데없이 성우 배한성의 고미술품 전시회 얘기를 꺼내는 것은 그의 미술품 컬렉션에 후한 점수를 주기 위해서는 아니다. 그는 사실 성우계의 마이스터인데, 공교롭게도 그의 전시회에 맞춰 ‘우리시대 마이스터’ 를 주제로 한 책이 최근 선보였다. 이 기획물의 첫 번째 저작이 바로 성우 배한성의 《열정을 담은 천의 목소리》(예문)이다. 마이스터란 곧 장인이란 뜻이거니와 확대 해석하면 해당 분야의 대표적인 미장센이라는 말과 맥락이 통한다. 그런 점에서 성우로서 일가를 이룬 그의 삶을 ‘우리시대 마이스터’ 1번으로 내세운 이 기획 시리즈는 신선하다. 성우라는 직업이 지니고 있는, ‘연예인일 수도 있고, 문화인일 수도 있지 않은가’ 라는 통념을 무너뜨려 문화인으로 바로 세운 장치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책은 ‘마이스터의 자전적 기록’ 으로 읽힌다. 자전적 기록이란 사실 미화로 얼룩지게 마련인데 그는 여기서 고등학교 2학년 때 고



● 이 글을 쓴 임동헌은

1985년 단편 〈묘약을 지으마〉를 발표하며 등단했다. 〈민통선 사람들〉 〈기억의 집〉 〈편지를 읽는 시간〉 등의 소설, 〈길에서 시와 소설을 만나다〉 〈가족식사〉 등의 산문집, 〈풍경〉 〈가족〉 〈아가에게〉 〈별〉 등의 사진에세이집을 냈다. 일간지 기사를 거쳐 〈출판저널〉 주간을 지냈으며, 현재 한양여대 문예창작과 겸임교수로 있다.

졸 이상의 학력자에게만 응시 자격을 주는 성우 모집 시험에 사촌형의 이력서를 위조해 응시했다가 낙방한 고백을 하고 있다. 사문서 위조 행위를 털어놓은 것인데, 그의 고백에는 여백의 향취가 있다. 그때 만일 합격했다라면 서류 검토 과정에서 사문서 위조 행위가 들통 났을 것이고, 그렇게 됐을 경우 성우라는 이름을 영영 갖지 못하게 됐을 것이라는 위안이다.

여기서 한 가지 단서가 잡힌다. 소년 가장의 삶을 살아야 했던 그는 형편이 어려워 경주로 가는 수학여행을 포기해야 했었고, 휴학까지 감내해야 했다. 그러니 '집은 곧 삶의 공간'이라는 생각이 화장암처럼 단단했으나 석동한 점 앞에 섰을 때 고등학교 시절에 못 갔던 수학여행을 보상받는 기분이었다는 점이 그것이다. 무슨 단서인가.

생각하면 단순하다. 건국 이래 우리 국민들은 평생을 집 한 채 갖는 소망을 가누며 살아왔다. 성우 배한성처럼 말이다. 그리고 집을 한 채 지닌 사람들은 여윌 돈을 만지게 되면 자신이 좋아하는 그림 한 점 사서 벽에 걸기를 소망해 왔고, 나들이를 하거나 영화 구경을 하거나 레저를 즐기는 삶이 가능하기를 희망해 왔다. 그 희망의 조짐이 보였던 시기는 공교롭게도 박정희 정권의 말기,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정권의 시기였다. 적어도 집값만큼은 '노력하는 자에게는 기회가 되'는 시기였던 것이다. '공교롭게도'라는 수식을 할 수밖에 없는, 독재와 쿠데타로 세운 정권 아래서 말이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들어선 진정한 민주 정권의 시대를 거쳐오면서 '공교롭게도'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어올라 이제 '노력하는 자들이 노력하다가 지쳐 포기' 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 아이러니한 결과지만 그것이 현실이고, 그 현실을 극복할 방법은 이제 거의 없어 보인다. 정권 담당자들이 말하는 그대로 양극화가 너무 노골화하여 사후약방문만 난무하는 형국이니 말이다.

예컨대, 성우 배한성 식의 삶이 이제는 불가능해졌으며, 마음에 차는 골동품을 기웃거리는 사람에게 '있는 돈만 내고 물건 가져가라'고 마음을 여는 골동품상도 자리할 곳이 없으며,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털어 값을 치른 후 골동품을 메고 집까지 걸어갈 청년이 생겨날 여지도 없어진 셈이다. 여기까지 생각하면 낭만과 기개를 잃지 않음은 물론 사문서 위조까지 감행해 가며 자신이 좋아하는 직업의 길로 들어서려고 했던 배한성 식 삶이 부럽기

까지 하다.

그렇다면 지금 왜 《열정을 담은 천의 목소리》를 내세우는가. 뒤집어서 얘기하면, 돈 가진 자들이 정부 정책의 허점을 파고들어 더 많은 재산을 형성하기 위해 기를 쓰는 한 어떤 정책도 완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어서이다. 어떤 이가 박수근의 그림을 은행에 맡겨 놓고 값이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일종의 점값은 장기 투자지만, 성우 배한성이 그만그만한 연적 열 점을 값 나가는 연적 한 점으로 바꾸지 않는 행위는 '컷 정'을 배반하지 않으려는 순정의 행위에 속한다. 이런 점을 집으로 연결시키면, 집을 투기 수단화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쉼터이자 잠자리를 수익 수단으로 삼는 저급한 투기 자본가라는 얘기다. 한심한 노릇이다. 세 차례에 걸쳐 대통령이 바뀌는 동안 집값을 잡지 못했다면, 그들이 평생 동안 독재·군사정권과 투쟁하는 동안 생명을 담보하며 싸워준 국민들에게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못했다는 뜻이 된다. 이를 떼면 채무 불이행에 속하는 셈이다.

그런 점에서 성우 배한성의 《열정을 담은 천의 목소리》는 마땅히 열정을 지닌 젊은이들에 앞서 소박한 삶을 저버린 채 전 국토를 투기장화한 투기꾼들, 혹은 소박한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의 꿈을 지켜주지 못한 위정자들이 읽어야 할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우리 사회에는 진정한 마이스터가 자랄 수 있는 토양이 얼마 남지 않았다. 더불어 성우 배한성처럼 마이스터의 목소리를 들려줄 사람도 흔치 않은 시대가 계속될 것이다. 이 기록을 남기기까지 배한성은 40년 동안 천의 목소리를 들려줬다. 배한성 같은 마이스터들 역시 몇십년을 그렇게 살아왔다. 하지만 배한성처럼 산다고 해서 배한성처럼 될 가능성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애기들이 도처에서 들려오는 것을 모르쇠할 수 없다.

한편으로는 배한성의 목소리가 순결한 감동을 낳는데, 한편으로는 배한성의 뒤를 이어야 할 젊은이들이 나는 사망 택지를 사는 데 돈을 다 쓰고 인사동에서 정릉 집까지 걸어가는 삶은 택하지 않겠다'고 선언할까봐 걱정이 다. 물론 그 책임은 배한성에게 있지 않다. 마이스터를 잉태하지 못하도록 견고한 차단기를 내린, 이 사회를 방치하거나 이용한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다. 그 책임을 물을 길이 있는가. 난감할 뿐이다. **한**